

04-12-6 0454217253328 3428258
7/21/2

한국여성재단의 지난 5년, 그리고 내일...

박 영 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한국여성재단이 어느새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년간을 돌아보는 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재단 창립을 준비하던 그 설렘있던 순간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지난 5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보고서가 발간된다고 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돌아켜보니, 이 나라의 최초의 여성을 위한 재단으로, 더군다나 시민사회운동의 역사 속에서 태동한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이었기에 한국여성재단이 걸어온 지난 5년에는 여러 역사적인 사연들과 그 사연들을 엮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는 몇 사람이 차 한잔을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싹튼다고 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의 탄생은 몇몇 여성운동 선배들의 만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99년 봄, 새천년을 눈앞에 두고 평생 평등한 세상을 꿈꾸어온 몇 사람들이 모여, 우리 후배여성운동가들이 좀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 더 많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성단체들이 예외 없이 직면해있는 재정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 주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위해 여성기금을 마련하기로 큰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 뜻을 공개적으로 펴기 시작한 것은 그 해 9월 1일 '여성신문'이 주최한 '여성기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 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달 15일에는 11명의 여성계 원로, 124개 여성단체 대표, 26명의 개인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범여성계가 (가칭)한국여성기금의 발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 해 12월 6일 드디어 대통령 영부인을 명예위원장으로, 각계 각층 57명의 남녀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사진)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의 당시 우선과제는 여성기금을 재단법인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출연금 모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위원회에서 법조계 공동위원장의 지적으로 법인체가 되기 전에는 모금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자신들이 먼저 출연금을 내놓으면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인허가를 받는 데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직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기도 하였고, 여성들이 주체로 되어있는 여성기금이 재단으로서 커나갈 수 있는지 당시까지만 해도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는 공익재단 설립의 선행이 없어서 이를 관계부처에 설득해내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쨌

든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해 12월 28일 행정자치부가 드디어 한국여성기금이 공익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데 허가해주었고, 그 때부터 여성기금 모금활동이 본격화됩니다. 우리 여성들은 큰 꿈을 꾸었습니다. 인구의 반이 여성이기에 적어도 1000억원의 목표를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당사가 IMF 사태의 어려운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목표였습니다만, 물론 단숨에 목표달성을 하리라고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날로 악화되는 속에서도 우리 여성들의 열망이 담긴 1000억원 여성기금 목표를 향해 조금씩 조금씩 달려온 것이 현재까지 20여만명의 평등지킴이들이 십시일반 조성해준 80억여원의 한국여성기금입니다. 물론 목표액의 십분의 일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2003년부터 재단 모금활동의 방향이 영구기금 모금에서 사업지원금 모금으로 크게 전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안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며 수익금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금운용방식이 은행이자에 의존하는 것이었는데, 은행금리가 하강세로 치달으면서 기금축적의 의미가 점차 없어져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금된 80억여원의 기금의 운용방법도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존재이유는 여성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좀더 많은 여성단체들에게 좀더 많은 지원금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현재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업별로 기부를 받는 것입니다. 의미와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업영역을 개발해서 직접 지원해줄 수 있는 기부자를 찾는 일, 예를 들면 재단에서 2003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짧은 여행, 긴 호흡' 여성단체 실무자 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박봉과 격무로 소진된 여성활동가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좋은 호응과 평가 속에서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이 향후 몇 년간의 사업비 지원을 약속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왜 여성재단의 기금은 자라지 않는냐고 질문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우리나라의 일인당 평균 기부금이 2800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현실은 참으로 적박합니다. 불우

한 이웃에 대한 나눔의 문화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온정'이라는 유산이 있기에 그나마 넉넉한 데 비해, 우리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는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유독 인색합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을 위한다는 일에 흔쾌히 가진 것을 쾌척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듯합니다. 가슴을 움직이는 마술이 여성들을 돕는 일에는 아직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재단 모금활동은 그 자체로 여성의 열악한 현실을 우리사회에 널리 알려내는 여성운동의 새로운 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사업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 지난 5년간 소외여성들을 돕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약 17억여원을 지원해왔습니다. 한국여성재단 파트너 단체들이 성실하게 수행해온 총 214개 사업은 지원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파트너 단체들과 함께한다는 재단의 초기 미션을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지켜온 결과, 언제부터인가 여성재단의 존재이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을 위해 기부하고자 하는 이들은 창구가 있어서 다행이라며 여성재단의 문을 스스로 두드리는가 하면, 여성단체들도 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격려가 된다고 합니다. 여성재단의 내일이 밝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여성재단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이사회, 각 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임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실무진의 각고의 노력이 5년간의 활동보고서에 담긴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눈부신 업적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 이제 오는 5년간의 재단 발전의 터전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실무진의 '無에서 有'를 창조해내는 부단한 추진력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립준비과정에서부터 2년간

의 재단의 실무진은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두 줄기를 이루고 있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파송한 일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의 사무실 한 쪽에서 몇 안되는 실무진으로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를 조직하고 재단법인 수속을 어렵게 해냈으며, 출연금을 모금하고 기금조성과 경상비 모금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참으로 열의를 가지고 해냈습니다. 또한 1999년말 한국여성기금으로 출발한 재단활동이 그 후 본격적인 운영체제를 점차 '한국여성재단'으로 옮겨오면서 그 때까지 기금 모금을 담당하고 있었던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때마침 실무책임자가 모금전문가로 대체되면서 사무처장 체제였던 것이 2002년부터는 사무총장 실무책임체제로 재정비되어 현재 실무진을 구성하고 있는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재단이 오늘에 이른 것은 바로 이들의 열의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지난 2003년, 2004년에는 재단 본연의 업무인 모금과 배분의 영역이 좀더 체계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특히 기억할 만한 것은 기업, 여타의 타지원기관, 여성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대외협력사업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단의 미션이 Fund-raising 이전에 Friend-raising을 우선하는 것처럼, 지정기탁사업이나 문화나눔 등의 기업과의 협력사업은 물론, 여성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로또복권 수익금의 혜택에서 여성의 몫을 찾았던 일, 또 지난 총선에서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여성을 국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유권자 운동에 힘을 보탰던 일 등의 활발한 대외활동이 있었습니다. 여성재단이 최초의 시민사회 공익재단으로서 여타의 다른 지원기관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여성재단이 창립 5주년을 맞았습니다. 향후 5년간의 새로운 도약의 날개를 펴기 위해 지금 재단은 우선 지난 5년간의 자기 성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미래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제도약 2010, 딸들에게 미래를!'이라는 기치 아래 사각지대 소외여성들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21세기가 요구하는 여성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주력하며,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도 당당하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여성리더십을 키워나가는 일에 힘을 보태야한다는 것에 우리의 뜻이 모아졌습니다.

이 뜻을 펴기 위해 5주년 기념행사에서 '미래포럼'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미래포럼은 우리사회의 현재를 진단하는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으로서 기업CEO들과 여성계 지도자들로 구성되며, 이 포럼에서 여성의 지도력

양성에 필요한 기금도 또한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애를 쓰시고 계신 분들께 이 장운 빌어 다시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재단은 5년 전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열의와 성의 그리고 야심찬 결단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나아갈 길이 아직도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음을 한발한발 옮길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여성단체나 여성재단이 필요 없는 때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재단이 목표를 향해 달릴 때 그 기쁜 걸음걸음 마다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함께 기뻐해주시고, 힘들 때마다 손잡아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한국여성 재단이 창립 5주년을 맞아 5년간 (1999-2004)의 활동보고서를 보내드리 마릿글
에 보듯이 앞이까지의 과정을 돌아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성취가 더오르도록 이 나라의 최후의 시민
사회공익재단이고 대한 여성을 위한 재단이여기에 겪었던 사연들을 더듬어 보려고 한다.

이런 여섯 번의 시간이 지난 것을 바꾸고 되돌아보며 새 출발하고 한다. 한국여성 재단의
한생은 몇 여섯으로 동산배들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1999년 봄 사회과학을 논하는 두 권의 책을
성평등세상을 꿈꾸어 몇몇 사람들이 후배여성들에게 읽기 위해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읽고
있는 재경비전의 여태임을 더해주기 위해 여성기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 뜻을 공개적으로 펴기 시작 한 것은 그해 9월 1일 '여성신문'이 개편한 '여성기금12년'을
위한 공개호소편이 부터였다. 15일에는 11명의 여성계위원, 124개 여성단체대표, 26명의 개
인지도인들이 함께 하는 법여성계가 (가칭) 한국여성기금의 발족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하고 12월 6일 대통령 영부인을 명예위원장으로 그리고 각계 57명의 남녀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한국여성기금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추진위원회의 위원회는 여성기금을 재단법인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출원금 모음이였다.
그러나 첫 위원회에서 법원에 공동위원장의 지적으로 법원에게 제기된 모금을 착수할까
노릇을 맡게 되었다. 추진위원회가 착수 한 첫 번째는 공동위원장 재단들이 먼저 출원금을 내
놓는 것이었다. 법원에게서 관리를 위해 모은 두두리기 전에 생긴 돈에 대한 문제는 법원
을 대표하는 이사장직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법원수속을 빠르게
되어서 22대까지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는 공익재단 설립에 전례가 없는 일로써 신드라
해 주기를 가져오는 것을 성취하는 일로 하는 것은 여섯다. 주무관서의 면피는 어려운 리로
여섯들이 주체가 되어 여성기금이 재단으로서 커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해 12월 28일 행정부는 한국여성기금을 공익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하였고 22대
부터 여성기금은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기금활동은 인구의 반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
여 1000억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I세대 이래의 여태를 상황에서 사회성을 높라
게 하기 위해 주었다. 물론 관습에 익숙함을 회복하고 꿈꾸지는 않았다. 그 후 우리 나라의
경제사회의 날로 발전하고 있어서 돈을 크게 내밀 수는 없었다. 22대 상황에서 2009년
말의 평등지킴이들이 십이일반으로 모은 기금은 현재 물론 여섯의 심볼이 일로 채우지 못
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2003년 부터 재단의 모금을 위한 주력은 영주기금모음에서 사회자금모음으로 방향
전환을 하였다. 이유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금의 수익금을 위한 은영 방식이 은영이라에
의도한 수 밖에 없는데 은영금리가 하락세로 치닫고 있어서 기금축적의 의미가 없어져
가기 때문이다. 현재 모금된 기금의 은영 방식으로 연구 리제이다. 재단의 큰재이유는
여성단체의 사회자금을 하기 위해서이다. 지출금을 증액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업비를 기부금 받는다. 물론 여성 사업종목을 개발해서 기부금을 찾는 일이다.
예를 들면 행복리 기부금 소진된 상태에 있는 함흥리리들의 재충전의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22대인 '재단 여성, 김현희'로 지난 22년간 좋은 회응을 얻은 사업으로
함흥 몇몇은 사회자금지원이 약속되어 있다.

사람들이 가끔 왜 여성재단이 기금은 지리 않느냐고 질문한다. 일례로 TV에서 우리
나라의 악인상 평판 기부금은 2800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기부문화는 항말하다.
부러한 이곳에 대한 나의 문헌도 정상대대로 물려 받은 문헌에서 우리나라가 낙후한데
이해 건장한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가 공익활동에 대해하는 것을 인정하다. 무임승차
에 익숙해 있어서 일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재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한국여성재단이 창립 5주년을 비례해서 우선한것은 제15차년도 정기총회이다. 향후 5년간의
4차년도 단약의 실행을 하기 위함이다. 한국여성재단의 미래비전을 어떻게 실현할것인지 "남은노력을
거둘것다. '재도약! 2010, 단약에게 미래!' 이라는 기치 아래 사각리대소리여성을 위한 복지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2차년도에 투자하는 여성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주력하며 나아가는 국제사회에서
자존감을 발휘할수 있는 글로벌여성리더십을 키워내가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에 뜻이 모아졌다.
이것을 패기있게 5주년 기념행사(비행) 대대토론회를 총법사관예행이다. 이것은 기약 CEO
한국여성재단이 추구하는 여성리더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전한 비전을 미래로 끌어가는 모임을 통해 여성
리더로 성장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일을 위해 애를 쓰시고 개인 분들께 재단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재단은 5차년도 PPP(2012년 6월 단약에게 회장을 주무히기 위해 열외리성의 그리고 아낌없는
결단으로 재단을 관장해왔다. 재단이 감감은 다할 뿐이다. 그러나 입후로 하고 계를 올리고
있다. 어느때나 우리 여성 단체나 여성재단이 필요없는 때가 올것이다. 그때를 향해
재단은 달려야 한다.